

GLOBAL DEFENSE NEWS



합 정	뉴질랜드 군용 신규 보급함정, 본국으로 항해시작
항 공	미 공군,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사업 정상 추진 중
감시·정찰	美 상원, 펜타곤의 5G 위험성 연구를 촉구
기 동	독일 연방군, 폭스 KAI 폭발물 처리(EOD) 차량 인수

전재·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〈Global Defense News〉,
〈국방과학기술정보〉誌로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
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● 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● 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함정

뉴질랜드 군용 신규 보급함정, 본국으로 항해시작

■ 뉴질랜드 해군의 신규 보급함정인 HMNZS 아오테아로아(A11)함이 한국을 출발하여 본국으로 항해를 시작함.

- 대한민국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(HHI)이 지난 6월 10일 26,000톤급 아오테아로아(A11)함에 대한 출항식을 발표
 - ↳ 2019년 4월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에서 진수했으며, 뉴질랜드 해군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함정 중 최대 규모의 함정
- 전체 길이 173.2m, 폭 24.5m이며, NATO 표준을 준수하는 해상보급용 마스트 2대 장비함
- 디젤연료 8,000톤, 항공연료 1,550톤, 담수 250톤을 탑재가능하며, 격납고 1개와 비행갑판 1개소를 장비함
 - ↳ 카만(Kaman)사의 SH-2 슈퍼시프라이트 헬리콥터 및 NHIndustries사의 NH90 다목적 중형헬기 등과 같은 회전익기를 수용

■ 아오테아로아함은 한국을 출발하기에 앞서, 연료 재보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험을 실시함.

- 시험에는 필리핀 해군용으로 설계된 신규 호위함인 BRP José Rizal(FF-150)함을 이용한 장치유지 시운전이 포함
- 연료와 물을 재보급하는 능력 이외에도, 탄약식료품, 예비부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 있으며,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(HADR) 작전 또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조

※ HADR :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



뉴질랜드 해군의 보급유조선 아오테아로아(Aotearoa)함

GLOBAL DEFENSE NEWS

항공

미 공군,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사업 정상 추진 중

■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, 2022년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시연 기대함.

- 이전에는 크기, 중량, 전력 등의 문제로 레이저 무기의 항공기 탑재에 회의적인 분위기였음
- 최근 사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항공기 탑재 가능성이 높아짐
- 무소음, 비가시 레이저는 적의 무기체계를 은밀하게 무력화 할 것으로 기대
- 2018년 록히드 마틴은 고출력 레이저무기 개발 계약 수주하였으며 2021년 첫 납품 예정

■ 록히드의 대형 무장 항공기 AC-130J 고스트라이더.

- 날개 폭 39.7m, 전장 29.3m, 전고 11.9m
- 최대이륙중량 74t, 비행거리 4,800km, 비행속도 670km/h
- 무장: 30mm 측방사격 체인건, 105mm 화포, AGM-176A 그리핀(Griffin) 레이저유도미사일, 날개에 장착된 GBU-39/B GPS 유도미사일, GBU-39B/B 레이저 유도 소구경 폭탄, 60kW 고출력 레이저 무기(예정)



AC-130J 고스트라이더(Ghostrider)

GLOBAL DEFENSE NEWS

美 상원, 펜타곤의 5G 위험성 연구를 촉구

■ 미 상원 위원회가 화웨이 기술을 네트워크 인프라로 가진 동맹국들의 위험성을 상세히 다루는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요구함.

- 21년도 방위정책 법안 요약에 따르면, 화웨이, ZTE와 같은 중국 기술회사의 5G 기술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냄
- 국방부 장관 또한 해외 주둔지 결정 시 화웨이, ZTE와 같은 벤더로부터 야기되는 5G, 6G 보안 위협을 고려
 - ↳ 전문가들은 화웨이, ZTE 제품을 사용하는 5G 도메인 인프라가 미군기지 인근에 배치할 경우 중국정부가 부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

■ 동시에, 미 국방부에 하여금 5G 무선 네트워크 담당 부서 설립 및 상업용 혁신 5G 기술 검증을 요구함.

- 지난 5월 미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(CTO)가 발표한 5G 전략에 따르면, 해당 부서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전국에서 선발된 군사 시설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5G 산업 데모를 진행
 - ↳ 현재 미 전역에 12개 테스트 베드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, 올 여름 말 시험 착수를 목표로 계약체결을 계획 중
 - ↳ 스마트 항구, 보급망 운용, 스마트 창고, 군수물자 계획 능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임
- 성공적으로 시험 및 입증된 제품은 신속히 배치될 것이며 적절한 기관을 통해 후속적인 인수,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계획임



5G 안테나 장비

기동

독일 연방군, 폭스 KAI 폭발물 처리(EOD) 차량 인수

- 독일 연방군 장비·IT 운영 지원청은 독일연방군이 라인메탈사의 폭스 KAI 폭발물처리 차량 7대 인수를 진행중이라고 발표.
 - 폭스 KAI차량은 연장 가능한 다기능 조작팔을 구비
 - ↳ 조작팔에는 고성능 센서, 특수 도구, 카메라 체계가 장비되어 있어, 관측 제한 영역 및 급조 폭발물 은폐 의심 위치 원격 정찰 가능
 - EOD차량의 조작팔은 기본 도구 이외에 다른 2종의 도구를 장착
 - ↳ 중형 이동식 헤드에 장착된 카메라 형태의 이중 센서는 관측 제한 영역을 광학적으로 조사하여 IED를 탐지
 - ↳ 작동 압력 400바(40 bar, 40 Mpa)의 수공압식 삽날 장치와 리퍼 끌로서 의심되는 물체를 식별하고, 이를 GPS를 활용한 디지털 형태로 표시하거나 EOD 공병이 하차하여 광학적으로 표시
 - EOD차량의 조작팔은 10m 이상거리의 도달이 가능, 400kg 중량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음.
- 폭스 KAI 차량 7대 중 4번째 차량이 최근 납품되었음.
 -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는 폭스 KAI차량 4대 조달을 위해 1,000만 유로 예산을 12월 12일에 승인
 - 라인메탈사는 차량 7대 전부 2020년 내 납품 완료될 것이며 계약 금액은, 5,000만 유로 범위가 될 것이라 언급
 - 라인 메탈사는 호송대를 지원해야하는 통로개척장비의 지원 없이 폭스 KAI차량은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



독일 연방군이 라인메탈 사로부터 폭스 KAI 폭발물처리차량 7대를 인수

GLOBAL DEFENSE NEWS